

건강과 수행

여름철 실내온도 전쟁

냉방병 예방 위해 실내의 온도 차가 5도 안쪽으로

모 기업의 박 부장(58)은 여름인데도 사무실에서 결을 꼭 입으며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서 감기까지 걸린 적 있다."라고 말한다.

하는 과정에서 열을 빼앗아 실내온도가 내려간다. 습도가 낮아지면 체감 온도도 함께 내려가므로 제습에 효과적인 탈란드시아,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것이다.

둘째, 주기적인 환기로 실내온도 낮추자.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집 안의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실내온도가 더 쉽게 올라가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여 집 안에 새로운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

셋째, 선풍기로 실내온도 낮추자.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 틀어달라

거나 너무 춥다고 비상벨을 누르는 민원을 받는다고 하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B(23) 씨는 손님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서 고민이 이만저

만이 아니라고 한다. 즉, 에어컨 가까이 앉은 고객은 춥다고 하고 멀리 앉은 고객은 덥다고 하니 말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보니 실내온도로 인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

선풍기를 이용한 실내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또 있다. 냉방기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알루미늄 캔을 찌그러뜨려 달궈진 선풍기 모터 부분에 붙여놓으면 선풍기 바람이 더 시원해진다.

냉방기에 붙여진 알루미늄 캔이 이 열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이다. 밤이나 환기할 때는 선풍기를 창가 쪽으로 향하게 해서 사용하는 데 이유는 집 안의 더운 공기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의 시원한 공기는 실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풍기를 이용한 실내온도를 낮추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더운 여름철에는 무엇보다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실내 적정온도를 지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승우 기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92화>

기상이변·기후위기는 구세주 나라에는 안 통해



지난 7월 말, 6호 태풍 인파(Infa), 7호 태풍 쉘파카(Cempaka), 8호 태풍 네파트(Nepartak) 등 태풍 3개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한반도에는 근접하지 못했다. [© 유튜브 '소박사TV'에서 캡처]

- 11절: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태도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께 육신을 벗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을 하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조희성 주님이 1981년 8월 18일 소사(素砂) 역곡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5가지 공약(公約)을 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하셨고 현재에도 그 공약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 ◆ 5대 공약
①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②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③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④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⑤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구세주의 5대 공약 가운데 태풍을 막고 장마를 못 지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겠다는 공약과 상호 보완적인 공약입니다. 정도령께서는 "남한 쌀농사가 한해 3천만 석만 초과하면 풍년이다."라고 기준까지 임의로 정해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구세주의 공약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 태풍 못 불어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분명히 태풍이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강한 바람에 간판이 떨어지고, 정박한 배들이 큰 파도에 파손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람이 태풍을 막는다!"라고 설교 단상에서 당당하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승리제단에 나와서 구세주를 따르는 신

자들도 "주님께서 저번처럼 남해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서처럼 태풍을 순식간에 소멸시키시든지 아니면 제주도 앞바다에 오기 전에 저 멀리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불어가게 밀어젖히든지 왜 안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의 빌미가 안 되면 좋을 텐데..." 하는 염려를 누구나 한 번쯤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태풍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비로소 승리제단 신자들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보다 1만 배나 더 큰 위력을 가진 태풍이라는 마귀 신과 맞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아내는 구세주 하나님의 근고한 입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태풍의 발생은 바다를 가열하는 태양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태양빛은 생사(生死)가 있는 이 세상의 빛인 고로 마귀의 빛입니다. 정도령의 증서공에 의해서 멀지 않아 태양빛이 소멸되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신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인간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넘쳐 언제 어느 순간에 치명적인 괴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청소하는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도 있습니다. 그러한 태풍은 여름철 해수면 온도를 낮추어 아열대에 있는 고기가 고온으로 폐사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고, 또한 농사가 잘 되게 논밭을 뒤집어엎듯이 바닷물을 뒤집어 건강하게 하며 적조를 퇴치합니다. 이렇

태풍의 세기와 진로를 조절하다

이렇게 하면 88올림픽 개막식에서 엘리트 무용가와 서울여상팀과 동대문상고팀에 의해서 공연된 '태초의 빛'은 해 뜨는 아침의 나라에서 출현한 동방 의인을 알리는 퍼포먼스일지도 모릅니다. 개막식 전날 9월 16일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만 정작 개막식이 열리는 9월 17일 날씨는 화창하게 맑게 개였는데, 이는 분명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하는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1988년 8월 12일자 일간스포츠신문은 '여름 불청객 태풍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태풍 9개 발생, 모두 진로 바뀌어 빠져나가 소멸'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실제 9개의 태풍이 한국으로 불어오다가 모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삽화로 그려서 지면에 실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88년은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해가 되었던 것

입니다. 88올림픽 기간 동안 승리제단 신자들은 구세주 조희성님의 존영사진을 부착한 피켓(존영 하단에 '동방의 의인 이긴자' 또는 '구세진인 정도령 출현'이라는 표어를 씀)을 들고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는 주경기장 앞에서 전도활동을 벌였습니다(제119호 1988년 10월 15일자 승리신문 1면에 관련사진 참조). 또 정도령의 5대 공약과 구세주 출현장소를 예언한 이사야서 41장 그리고 구세주의 증표를 예언한 호세야 14장 5절 등을 영문으로 번역한 팸플릿을 외국인 기자와 관광객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팸플릿에 실린 정도령이 5대 공약의 주인공임을 알리기 위해서 88올림픽이 열리던 그해에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바다 멀리서부터 아예 진로를 바꾸게 하여 한 차례도 못 불어오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88올림픽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각국으로부터 파견된 특파원들 가운데 특히 대만에서 온 기자들에게는 정도령의 5대 공약을 담은 팸플릿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역시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태풍이 불어오는 길목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태풍 주다가 발생했던 88년 여름에 대만을 폭우로 제방이 파손되어 긴급히 제방을 복구하지 않으면 식수난을 겪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초대형 태풍이 대만을 향해 맹렬히 돌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던 타이베이 시장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나 여호와가 대만으로 불어오는 태풍을 좌로 밀어제치어 못 불어오게 하겠다"는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하는 구세주

이렇게 하면 88올림픽 개막식에서 엘리트 무용가와 서울여상팀과 동대문상고팀에 의해서 공연된 '태초의 빛'은 해 뜨는 아침의 나라에서 출현한 동방 의인을 알리는 퍼포먼스일지도 모릅니다. 개막식 전날 9월 16일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만 정작 개막식이 열리는 9월 17일 날씨는 화창하게 맑게 개였는데, 이는 분명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하는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1988년 8월 12일자 일간스포츠신문은 '여름 불청객 태풍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태풍 9개 발생, 모두 진로 바뀌어 빠져나가 소멸'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실제 9개의 태풍이 한국으로 불어오다가 모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삽화로 그려서 지면에 실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88년은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해가 되었던 것

입니다. 88올림픽 기간 동안 승리제단 신자들은 구세주 조희성님의 존영사진을 부착한 피켓(존영 하단에 '동방의 의인 이긴자' 또는 '구세진인 정도령 출현'이라는 표어를 씀)을 들고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는 주경기장 앞에서 전도활동을 벌였습니다(제119호 1988년 10월 15일자 승리신문 1면에 관련사진 참조). 또 정도령의 5대 공약과 구세주 출현장소를 예언한 이사야서 41장 그리고 구세주의 증표를 예언한 호세야 14장 5절 등을 영문으로 번역한 팸플릿을 외국인 기자와 관광객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팸플릿에 실린 정도령이 5대 공약의 주인공임을 알리기 위해서 88올림픽이 열리던 그해에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바다 멀리서부터 아예 진로를 바꾸게 하여 한 차례도 못 불어오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9>

목운(東方)에서 금운(西方)으로 바뀐 후 일어나는 일들 - 1

오행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도표 참조).

첫 번째 동방 아축비불(阿闍維佛, 闍) 절집에서는 축으로 읽음)은 오행에서 보면 방위는 동쪽이요 운세는 목운이다. 봄에 과일이 익을 리 없어 맛은 신데 이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의 시작이요 땅에 곡식을 심는 것과 같이 정성과 수고함도 크다. 하늘의 문을 여는데 이전에는 없던 일이라 두 분의 수고와 미륵까지 합해 세 사람의 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미륵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지만 굳세게 인내하며 큰 지혜로서 마귀의 정체와 마귀가 깊이 감춰둔 약점을 찾아내 사마(四魔)를 이기고 소멸(掃滅)시키고 결국은 완전 무아(無我)에 이르러서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과 미륵의 신인합일(神人合一)을 이루어 불도(佛道)를 이룬다.

Table with 8 columns: 5行, 天干, 地支, 5色, 5方, 5味, 5香, 易, 數. Rows include 木, 火, 土, 金, 水 and corresponding elements like 甲乙, 寅卯, 青, 東, 酸, 春, 3, 8.

이것을 알려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도성인신(道成人神)이라고 하며 우리 말로는 잠사람이라는 뜻의 진인(眞人)이라고 한다. 또한 도를 이루는 수련과정 중에 온몸의 피가 바뀌고 피가 바뀌니 몸은 금색(金色)으로 바뀌는데 절집에 불상에 금물을 올리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도 바뀌는데 동방(東方)에서 서방(西方)으로 바뀐다. 오행을 참고하면 서방은 금운(金運)이 되며 봄에 심은 곡식

을 거두는 가을(秋)에 해당한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능엄경에 이르길, [예] 정본수능엄경(正本首楞嚴經) 4권 상근 획익(上根獲益) 復次阿難 汝今知否 부차야난 여금지부 阿彌陀佛 在彼不遠 汝起合掌 面西頂禮 아미타불 재파불원 여기합장 면서정례 다시 또 아난야, 너는 지금 알고 있는

나? 아마타부처님께서 저기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너는 일어나 합장(合掌)하고 서쪽을 향해 정례(頂禮)하라. 이 말의 뜻은 미륵이 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하는데 극락을 이루는데 서쪽은 서방(西方)을 말하는데 바로 성불한 미륵부처요 미륵부처가 극락천국을 이루니 아마타부처라는 뜻을 감춘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미륵이 이미 성불해서 모든 만물을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하는 데,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에서 구원해서 죽지 않는 세계가 극락세계, 즉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天國), 하늘나라 아닌가? 그런데 석가모니가 불경에 말세 중생들이 이런 환란과 착각을 할 것 같으니 남긴 경구가 있다. 同其一名號. 歸依於佛者, 眞名優婆塞 동기일명호. 귀의어불자, 진명우바새 모든 보살과 부처는 한 이름이었으니 미륵부처님이 아마타 부처님이다.(다음호에 계속)* 명종

올해 6월 초에서 8월 초까지 발생한 천재지변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 폭염과 한파, 기온과 홍수, 폭풍우와 화재 등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이자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다. _ 유튜브 '소박사TV'에서 캡처